

## 과연 여자의 포경수술은 필요한가?



차영일 비뇨기과 원장

**미** 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면 우람한 체구에 왜소하게 달린 포경 상태의 음경을 볼 수 있다. 포경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시대에서부터 있었을 것이다. 옷을 입지 않던 유인원이나 원시인 시대에 음경은 거친 환경과 추운 날씨로부터 귀두를 보호할 목적으로 포피(음경의 껍질)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옷을 입게 되었고 귀두를 보호하고 껍질은 오히려 그 속에 습기가 많아 찌꺼지(치구)도 끼고 냄새도 고약하게 나고 여러 가지 해로운 병을 생기게 하므로 현대의 남자들은 포피의 남아도는 부분을 잘라내는 포경수술을 받게 되었다.

구약성서 창세기 17장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중략) 너와 네 후손과 나 사이에 세운 내 계약으로 너희는 포경을 베어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대대로 너희 모든 남자는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후손이 아닌 네 집에서 태어난 씨종이나 돈 주고 산 종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영원한 계약으로서 너희 몸에 새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99세의 아브라함과 13세의 아들 이스마일은 같은 날 할례를 받고 그 후 이사악은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 연유로 유대교도들은 야훼와의 계약대로 남아에 한하여 생후 8일째 되는 날 랍비가 할례예식을 행하여 주었으나 소독관념이 없고 돌칼로 마구 자르는 것이 비위생적이고 감염이 많이 생겨 요즈음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 수술을 대행하여 준다.

이슬람교의 코란에는 할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마호멧의 관행이라는 “순나” 등에 의거하여 할례식을 행하지만 민족별로 지역별로 할례예식을 받는 자들의 연령과 방법은 제작기 다르다. 어떤 곳에서는 생후 7일, 14일, 21일 또는 24일 되는 날 할례예식을 행하기도 하고 3~4세 때, 6~7세 때에 하는 곳도 있으며 아프리카 등에서는 사춘기때 받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부족 사회에서는 통과예식의 하나인 성인식(成人式)때 할례를 받게 한다.

포피는 포경상태에서는 귀두를 덮고 있어 포피속에는 항상 습기가 차 있고 그 속에서 치구라는 누런 분비물이 나와 습기와 섞여 고약한 냄새가 난다. 여기에 염증까지 합치면 포피염, 귀두염, 귀두포피염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궤양이 생기고 이런 불결한 상태가 오래 되어 음경암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음경암 환자의 92%가 포경 또는 과장포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으므로 습기와 치구의 자극이 없어 남자들에게 음경암이 없고 따라서 부인에게도 자궁경부암이 적다는 것이다.

할례 즉 포경수술은 귀두 둘레를 덮고 있는 남아도는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로 의학적으로는 환상절제술이라고 한다. 수술의 시기는 통증을 덜 느끼는 시기인 태어나서 며칠 안에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포경 수술의 장점을 이해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시절에 받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니 구약성서에서 이사악은 생후 8일만에 이스마일은 13세 때에 할례를 받았으니 요즘 행해지는 포경수술의 시기가 성서에 언급된 것 과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여자의 포경수술은 아프리카, 일부 이슬람 국가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음핵 또는 대음순과 소음순의 일부를 절제하는 것인데 음핵만 절제하는 순나형, 음핵, 소음순, 대음순을 자른 뒤 환부를 봉합하는 파라오형, 그리고 1946년 이 지역 국가에서 파라오형 할례의식을 금지시키는 법령을 공포하므로 그 중간형이 생겼다고 한다. 이집트에서는 여자들의 경우 성적 욕망을 진정, 억제시키기 위해 할례를 행한다는 학설도 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여자가 할례를 받으면 잘려나간 음핵을 한달 동안 부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데 이는 사악한 마음에 의한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해지는 여자의 포경수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서구의 일각에서는 여자들도 포경수술이 필요하다는 이론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여자의 포경수술의 목적은 음핵을 덮고 있는 껍질 속에 때가 끼어 잘 씻지 않으면 비위생적이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데 이 냄새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성생활 때 음핵이 껍질 속에 숨어있으므로 자극에 둔하게 되어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껍질을 제거하는 수술로 음핵을 노출시키자는 데 있다.

서구에서 주장하는 여성의 포경수술이 아프리카 등에서 행해지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음핵을 잘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음핵을 보존하고 음핵을 덮고 있는 껍질만 열어주므로 때가 끼지 않아 보다 위생적이고 음핵이 노출되어 성생활때 자극을 많이 받아 극치감을 느끼도록 하여 성기능 장애를 감소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의 성기능 장애는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많으므로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부인이 남편의 요구에 즐겁게 마음을 여는 여유를 갖도록 성 파트너가 서두리지 말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유도하는것이 포경수술로 음핵을 노출 시켜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PPKK